책임

등장인물: 엄마, 아빠, 유경(언니), 윤지(동생), 윤지 친구, 구조대원

줄거리

어느 날 집에 강아지를 데려온 동생으로 인해, 집 안이 발칵 뒤집힌다. 맞벌이하는데 집안일을 혼자 떠맡던 엄마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쏟아낸다. 그러다 예전에 햄스터를 굶겨 죽인 자신의 무책임함에 실망했던, 언니의 트라우마를 건드린다. 끝나지 않는 엄마의 투덜거림에 짜증난 아빠는 화를 낸다. 언니가 엄마에게 화내는 아빠에게 불만을 표출하자, 아빠는 욕을 하며 공격적으로 말한다. 이에 언니는 화가 나 강아지를 들고 나가버리고, 싸움은 종결된다. 구조대에 전화하고, 강아지를 데려간 것까지 지켜본 언니는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자 보이는 풍경은, 설거지하는 엄마와 편히 누워 TV를 보는 아빠. 아빠는 집에 들어온 언니를 째려보다가 다시 TV로 고개를 돌린다. 그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들어와 강아지 행방을 물어본다. 순간 화를 내버린 언니는 잠시 진정하고 동생에게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동생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다. 언니는 잠시 생각에 빠지다가 노트북을 키고 유기견 보호센터 사이트에 봉사활동을 문의한다.